

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, 장애인복지관엔 상품권·농업인단체엔 응급키트... 소외계층·영농 현장 동시에 챙겼다

✎ 김준혁(=호남) 기자 | ☎ 승인 2026.09.22 20:18

농촌지도자연합회 등 3개 단체에 300만 원 상당 물품... "무더위·안전사고 대비 실질 지원"



22일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, 이어 농업인 단체 3곳에 3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건넸다. [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]

[폴리뉴스 김준혁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지역 소외계층과 농업인 현장을 함께 챙기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.

22일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, 이어 농업인 단체 3곳에 3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건넸다.

농업인 단체 지원은 영농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무더위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.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,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,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 응급키트와 모자 등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물품을 전달했다.

정경훈 지사장은 "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소외계층과 영농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"라며, "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해남완도지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밝혔다.



김준혁(=호남) 기자 junjun6816@naver.com